

# 좌윤공파 연원재사(燕院齋舍) 준공식 성황리 거행

권오신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좌윤공파 종원들이 이뤄낸 역사적 위업, 성지(聖地)의 탄생



상량문에는 '응천상자삼광(應天上之三光) 하늘의 세 가지 빛(해·달·별)에 응하여,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 인간 세계에 오복을 갖춘다.'라는 글귀와 양단에는 용(龍)자와 구(龜)자를 적어 상향했다. 삼광과 오복은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라는 축원이 담겨진 내용이고, 용·구는 집이 화재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고자 하는 뜻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배흘림 기둥



연원재사 본청 기단석. 불국사와 같이 자연석 위에 대리석을 배치했다.



돌담



연원재사 마당에 깔린 전돌, 1200°C 이상에서 기와와 똑같이 흙으로 구웠다.

합체단에서 1시간에 걸쳐 고유제를 마친 일행은 연원재사로 이동하여 권오신 회장과 권해옥 회장을 비롯 김창희 전 성균관 부관장, 권명호 국회의원, 권한우 총무국장, 권오기 전 사무국장, 권오복 유사(원쪽부터)

자의 진행으로 먼저 식전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가야금, 해금과 대금의 연주와 함께 국악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권오신 회장은 개회사에서 연원재사는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을 그대로 본땄고, 기단은 경주 불국사 기단과 같이 자연석 위에 기단석인 대리석을 올렸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터는 고려 시대부터 좌윤공파 조상들이 물려준 역사적인 터전이다. 우리는 조상이 남긴 재산을 숭모정신으로 그대로 보존하여 미래 청년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권해옥 회장님, 김창희 전 성균관 부관장님, 권명호 국회의원님, 김형동 국회의원님, 권갑현 편집위원장님, 권오근 집례님 등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연원 성역화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쓴 권오식 부회장, 권한우 총무국장, 권오기 전 사무국장, 권오복 유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한우 총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84년간의 애을은 간직한 구 제사 건물을 헐고 세 번째 중창공사가 될 연원재사 공사에 11억여원의 예산이 들었다. 500평 부지에 팔작지붕형 정당(본청)과 맞배집 형태의 동, 서재를 배치하였다. 정당(본청)은 국보로 지정된 영주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과 같은 형태의 배흘림기둥을 연화문 대좌에 앉히고, 지붕 용마루 양끝엔 매처럼 생긴 치미와 여려 상을 얹어서 고풍의 전통미를 표현했다. 암마당 바다엔 통일신라 때 창건되었던 황룡사 연화문 전들을 깔았고, 기와담장으로 전통미를 살려 파조와 예하 선조께서 사셨던 고려시대로 최대한 가까이 꾸며 보았다. 단아하면서도 고풍이 느껴지는 이 연원재사는 고건축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태성문화재단에서 시공을 하였다. 1년이 넘는 공사기간이었지만 섬세함과 뛰어난 기술 공법으로 열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자랑스러운 안동 권문의 후손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감격스러움이 북받쳐 오른다. 고결하셨던 선조님들을 숨모해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권문의 자손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우리 자손 모두의 각 문중마다 자손 창성과 번영, 창달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면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권해옥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2019년부터 좌윤공파에서 추진했던 연원재사 성역화 사업을 완성하여 후손으로서 선조님께 고유(告由)하고 모든 족친 여러분과 함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파시조 좌윤공파에서 좌윤공파를 여신 아래 고려 총무국 때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을 지낸 후손과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후손도 있으시고 불사이군으로 조선의 백이숙제라고 추앙받은 후손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임진왜란 때도 10명이 넘는 의병장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후손들이 바로 좌윤공파의 인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선조들의 이 정신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좌윤공파에서 파시조 향사를 700여 년 동안 지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여 이에 권오신 회장께서 중심이 되어 좌윤공파 모든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뜰뜰 둥처 각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파조님의 단소를 마련하고 연원재사를 새롭게 중건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안동 창발골 일대를 성역의 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좌윤공파의 숭조정신은 후손들에게 웃음을 여미며 하고 타 종중의 모범이 되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족친 여러분!

오직 이 일은 권오신 회장께서 언론계에 투신한 경험과 경륜으로 연원재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좌윤공파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지난 600여 년 동안 좌윤공파를 이끄신 무려 800분 가량의 혼조들의 실록을 편찬한 200자 원고지 만 장 분량의 글을 7년에 걸쳐 집필하여 심장수술까지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파시조 고유제와 준공식에 맞추어 출간하게 된 것은 오로지 권오신 회장의 열정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권오신 회장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처럼 족친간에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숭조정신을 적극 발휘하여 천년만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간략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전 성균관 부관장은 연원재사 건축을 디해주신 덕분에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자랑스러운 안동 권문의 후손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감격스러움이 북받쳐 오른다. 고결하셨던 선조님들을 숨모해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권문의 자손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우리 자손 모두의 각 문중마다 자손 창성과 번영, 창달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면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권해옥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2019년부터 좌윤공파에서 추진했던 연원재사 성역화 사업을 완성하여 후손으로서 선조님께 고유(告由)하고 모든 족친 여러분과 함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권명호 국회의원은 저는 38세이고 좌윤공파이다. 지역구는 울산 동구이다. 여기에 와서 보니 다 닮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

고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게 틀림없는 거 같다. 안동권씨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연원재사 건립 과정에서 고생하신 권오신 회장님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연원 성역화 사업을 완성시킨 그 노고에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 참석하신 권해옥 대종회 회장님과 내빈, 후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안동권씨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원재사는 좌윤공파의 숭조정신이 놓죽된 건축물이다. 연원재사 설계에서부터 완성까지 구석구석마다 권오신 회장의 손길이 달지 않는 부분이 없다. 기와장 하나도 돌 하나도 그저 놓여진 게 없다. 마당에 들어서서 연꽃이 수놓아진 전들을 한 발 한 발 밟노라면 마치 연꽃 위를 거니는 듯하다. 예전부터 그 자리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섬세하면서도 치밀하다. 그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연원재사 규모는 부지면적도 크지만 동서재가 떼 벌치는 큰 채는 우리나라 전통 고건축의 미를 모두 갖춘 팔작지붕 골기와 집 형태다. 건축물의 특징은 배흘림 산양(山櫟, 큰기둥)이 등을 배치, 건물의 규모와 미적 효과를 최대한 뽐낸다. 배흘림 산양(山櫟, 큰기둥)이 재사 건물에 도입된 사례는 전국에서 연원재사가 처음이며 현존 건물로는 통일신라 때 지어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이 유일하다.

팔작지붕 용마루엔 길상과 벼시를 상징하는 치미가 건물의 웅흔함을 높여주고 주녀마루 네 곳에는 잡상(손오공 형상)과 귀면(鬼面) 기와를 얹어 재사의 미적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배흘림기둥을 떼받칠 주춧돌엔 화강암

연화문 대좌를 깔고 삼문(三門)에서 큰 채

에 이르는 신도(神道)와 마당엔 통일신라 시대 황룡사에 간 연화문 전돌을 그대로 옮겨 건물과 마당이 완벽한 조화가 되도록 꾸몄으며 100년 후엔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 고건축 미를 최대한 살렸다.

김창희 전 성균관 부관장은 연원재사 중건 기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며 조상이 덕을 쌓은 집안은 후손이 여유로움을 알 수 있고 원류가 면 물은 멀리 흘러가나니 여러 갈래의 계파가 번성함을 가히 증명할지로다

안동부의 북쪽 십리지점의 오산방 잣밭

골은

천동산 지맥이 순조롭게 굽이돌아 송립의

명당일세

여기 고려 좌윤 휘 지정공 4대의 설단이 있

도다

후손들은 태산북두처럼 공경으로 우러

르고

사람에서는 추존하여 흙선하며 바라보네

고려조가 개국할 때 아보공신 태사공의 어진

후손이요

삼한의 뿌렸한 가문의 한줄기로서 더욱더



연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연원재사 일원을 성지로 탄생시킨 주역들. 권오신 회장, 권오식 부회장, 권한우 총무국장, 권오기 전 사무국장, 권오복 유사(원쪽부터)

빛나도다

6세 문정공은 훌륭한 아드님 일곱을 두어 가세가 크게 창성하고

7세 문경공은 조선의 정승으로서 성대(세종)의 어진 신하로다

정조 경자(1780)에 재사를 처음 짓고 연원재사 이름 하였으며

정죽(1937)에 새롭게 곡자로 중건하니 씻은 듯 깨끗하네

해가 거듭되니 비바람에 씻기고 깍이어 무너질 위기를 당하였고

세월이 오래 지나 신축년에 종종의 의논으로 다섯 칸 반퇴로 중건하도다

이에 동재를 구축하여 후손들이 모이는 곳으로 삽고

서재를 함께 세워 재사의 제기를 관리하는 집으로 삽았다네

돌 한덩이 나무하나 모두들 정성을 다해 수집하였고

골짜기 하나 물 한줄기 조화가 서로 응하였도다.

라고 연원재 중건을 축하했다.

권수옹 부회장은 좌윤공파 선조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몸을 바쳐 희생했던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 그분들이 삶의 풋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후손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선조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희생한 선조들의 그 터전 위에 오늘 행사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좌윤공파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좌윤공파는 권오신 회장의 타월 한 리더십과 종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힘의 모반이 되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했다. 그래서 일자 준공식에 참석하여 연원재사를 처음 본 사람들은 건축물이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이며 배흘림기둥은 물론 돌 하나에도 기품이 넘친다면서 50여년 후에는 틀림없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연원재사는 조상들의 혼과 얼이 깃들고 후손들의 정성으로 성지의 상징물이 되었다. 자손만대까지 길이 보존되고 숭조정신이 계승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국장 권행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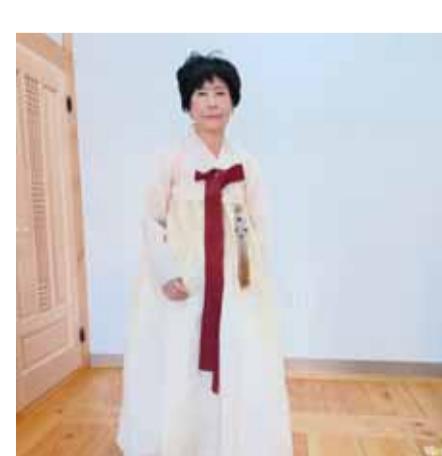
권오신 회장이 영주석재산업 박찬원 대표(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연원재사 건축물을 시공한 태성종합건설 권기범 대표(오른쪽, 좌윤공파 후손)에게 감사패 전달



접수하는 모습



권오신 회장 부인 안정숙 여사. 합체단에 진설할 제수를 지급정성으로 마련하여 행사 당일 새벽에 포함되어 안동까지 봉송하였다.